





제 1 장
태초




A man with a beard and glasses, wearing a dark suit and tie, is seated in a large, ornate chair. He is holding an open book and appears to be reading. The setting is a library or study, with a large window behind him showing a bright light. To the right, there is a bookshelf filled with books. The room is decorated with red curtains and gold-colored accents.

이 이야기는 아주,
아주 오래된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할 이야
기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사
실이지요. 어떤 것은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이란
때로 지어낸 이
야기보다 더 이
상합니다.



처음에... 아니,
처음도 되기 전,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와 해와
별이 만들어지기 전, 심지어 빛과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삶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
고 싶어하셨습니다. 친
구와 이웃을 원하신 거지
요.

시작도 없으신 그분은
홀로 계셨지만 외롭지는 않
으셨지요. 그는 완벽한 사랑
의 삼위일체인 스스로와 대
화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자기 왕좌를 둘러싸고 자기를 찬양할 수많은 종류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만드셨는데, 루시퍼가 그들 중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를 내쫓으셨고, 그의 이름은 사탄으로 바뀌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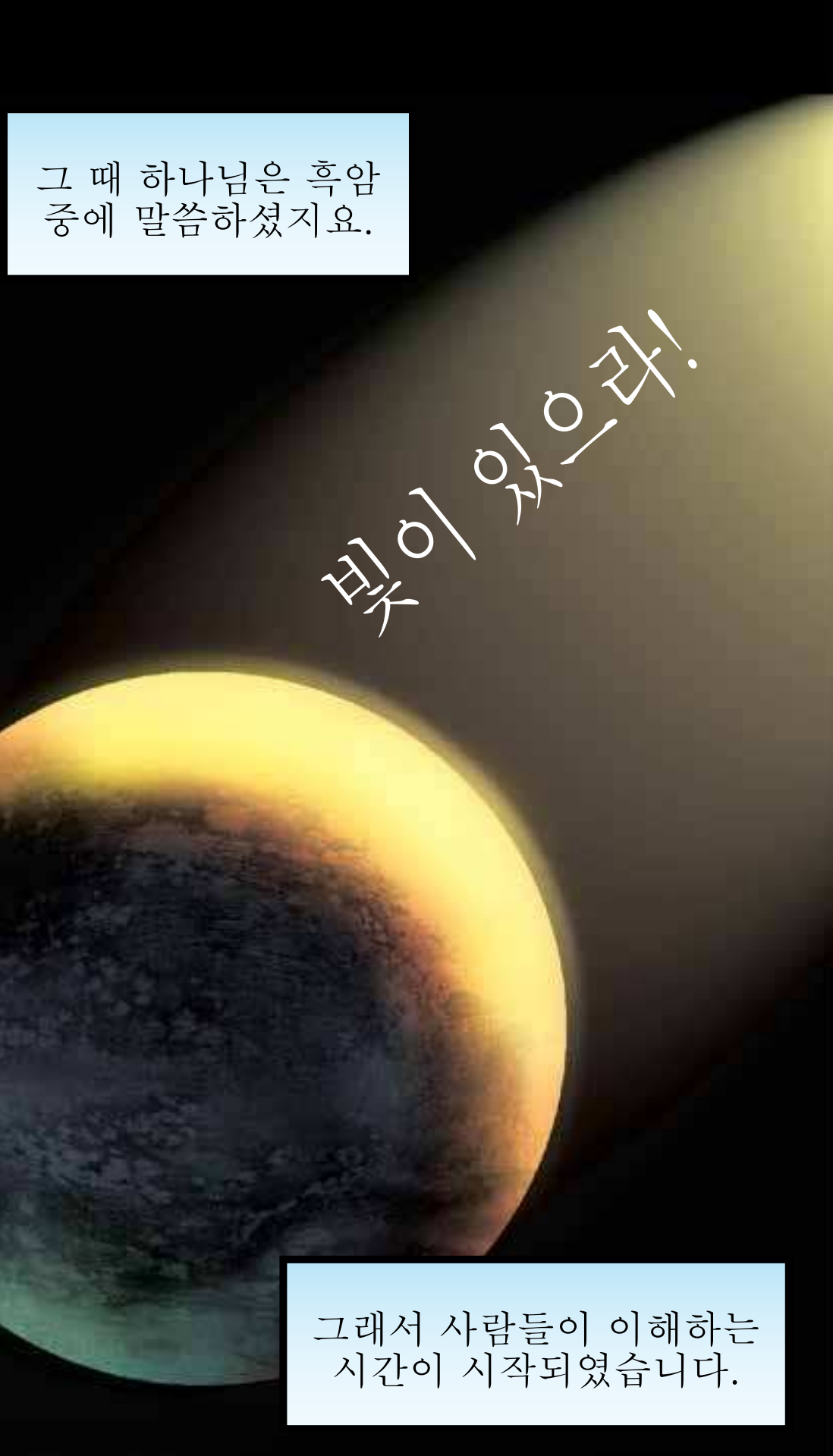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탄
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역사와 미래를 다음 구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12~14;
에스겔 28:13~19; 마태복음 25:41; 누가복음 10:18; 요한계시록 12:4, 20:2;
이사야 45:18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형태가 없고 텅 비었으며, 하나님은 물 위에 다니셨습니다.





그 때 하나님은 흑암
중에 말씀하셨지요.

빛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많은 현대인의 생각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자는 진화를 사용하지 않았습
니다. 그는 단지 있으라는 말씀으로 모든 만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24시간짜리 하루를
여섯 번 지낸 옛세만에 하나님은 지구위에 살
모든 동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약 B.C. 4004년경 - 창세기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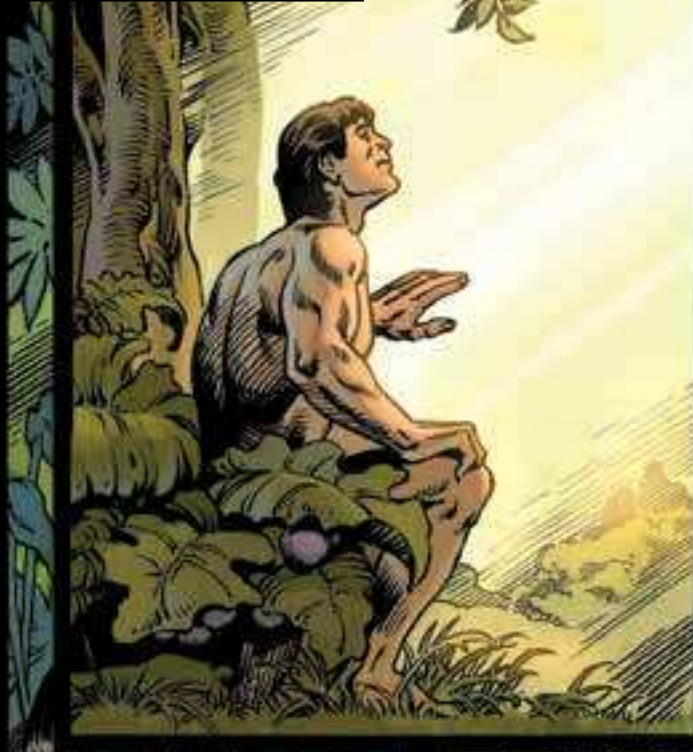


여섯째 날, 하나님은 이 땅의 흙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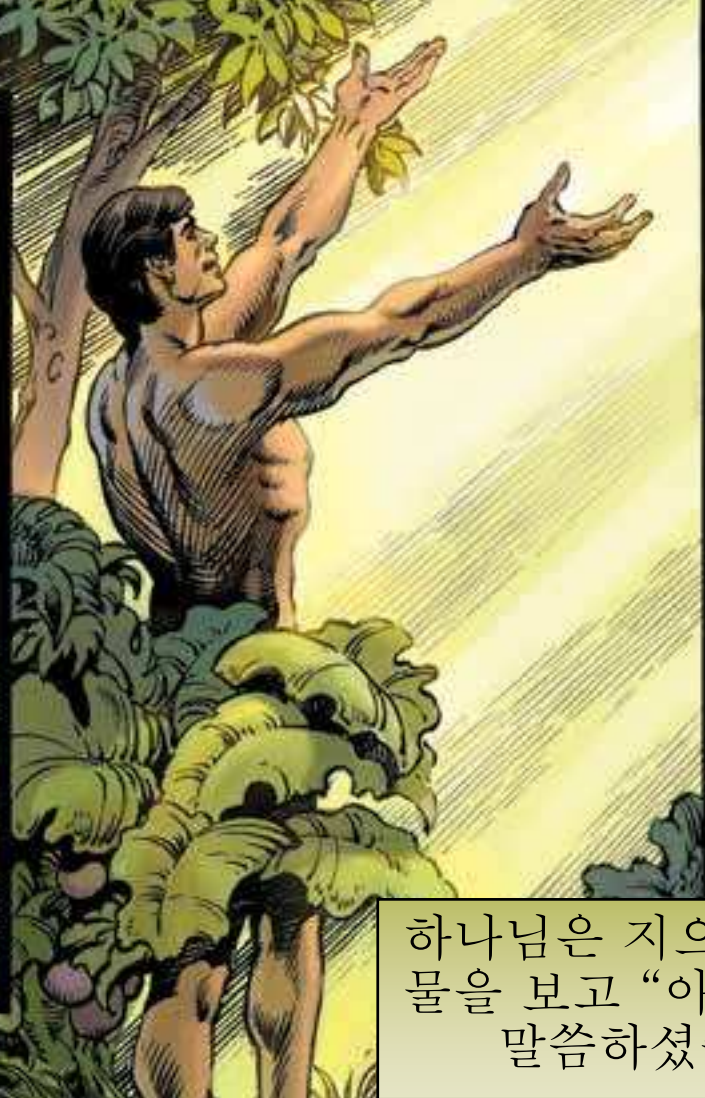


그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고서,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그 분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산 존재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새로운 창조물을 남자라 하고, 그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31,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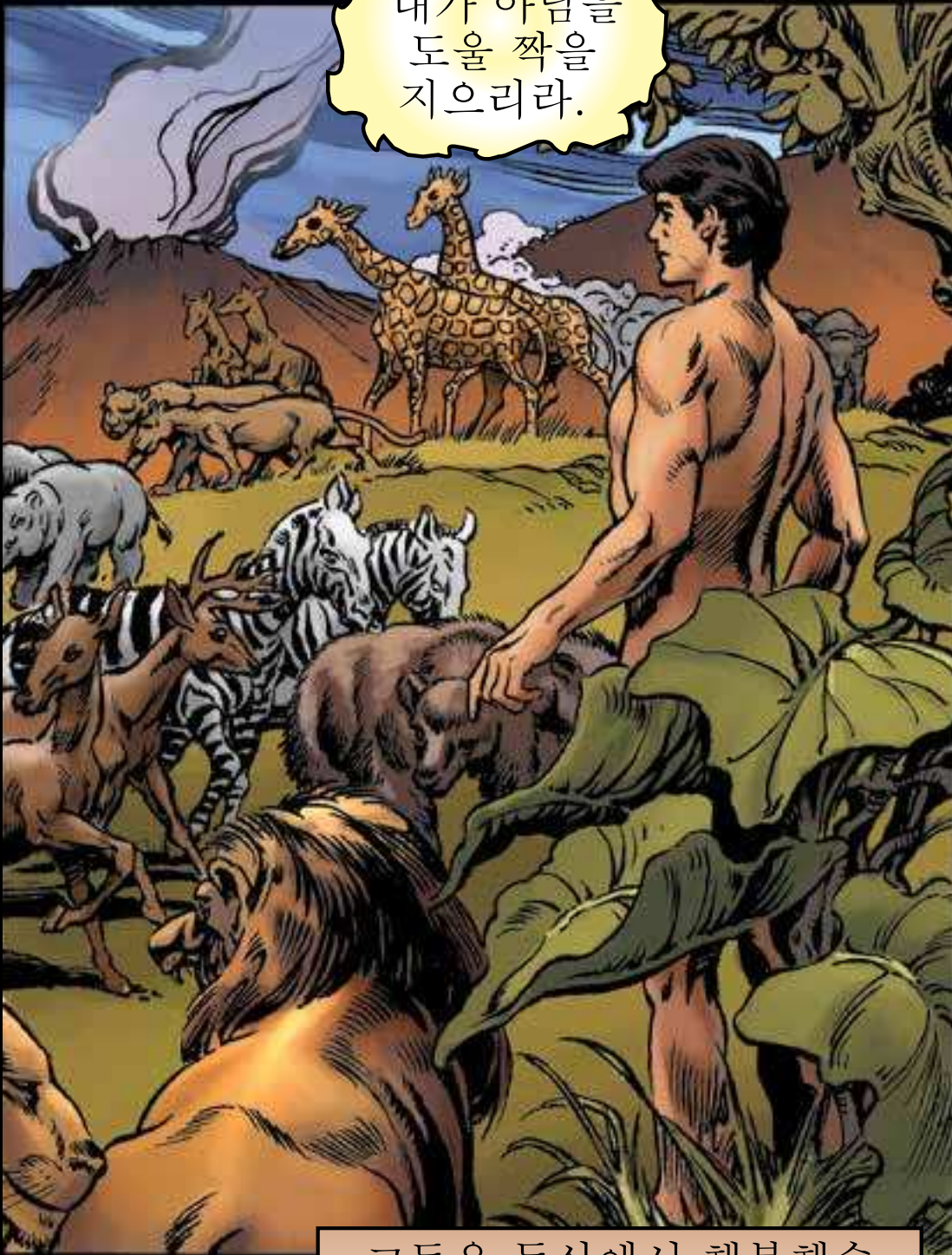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고 “아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야기를 나누셨
고, 삶은 아름다웠습니
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
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
려고 모든 동물들을 아
담 앞으로 데려가셨습
니다. 동물들이 앞을
지나는 것을 보고서
아담은 자기에게는 동
물들처럼 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담을
도울 짝을
지으리라.



그들은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 곳은 죄악도 배고픔도 없고, 너무 추워지거나 더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깨워 그 여자를 데려오
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아 이 땅을 채
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아름
다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 둘은 벌거벗었지만,
어린아이들마냥 그 사
실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내 뼈 중의 뼈
요, 살 중의 살
이구나.

악한 자,
사탄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행복했습니다. 그곳은 죄악도 배고픔도 없고, 너무 추워지거나 더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망치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하와와 대화하기 위해
생물의 몸에 들어가 그 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나무만 빼고
다른 모든 나무의 열
매는 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를 만지면 죽
을 거라고 하셨어.

픽! 안 죽어.
그 열매를 먹으면 하
나님같이 된단다. 그
리고 우리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분하
게 될 거야.

A woman with long dark hair and a surprised expression looks up at a glowing golden fruit hanging from a tree. Her right hand is raised towards the fruit. The background is a bright blue sky with green foliage.

보기에도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 먹으면 지혜로
워질 거고. 그렇지만 하나
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선과 악이 무
엇인지 몰랐습니다.

A woman with long, dark, wavy hair is shown from the chest up. She is holding a golden apple in her left hand and has her right hand raised to her face, looking upwards with a surprised or shocked expression. The background is a bright yellow sunburst, and there are green leaves and another golden apple hanging from a branch in the upper right corner.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고 말았지요.

뒤늦게야 하와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악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그 열매를 남편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자, 나 안 죽었잖아요. 먹어 봐요, 당신도 지혜롭게 될테니까.

창세기 3:1~6; 요한계시록 20:2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으하하,
이제 너희는 그에게
죽었다! 그가 나한테
어떻게 했나
보라구!

아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 그가
곧 오실 텐데. 벌거벗
은 걸 가려야 해.







아담아, 어디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
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하더냐? 내
말을 어기고 먹지 말
라 한 그 열매를 먹었
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
습니다.



쉬-익

뱀이 저를 속였어요.
제가 죽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
았어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
가 되게 할 것이다.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
꿈치를 상하게 하겠고 여
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전쟁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멸망시킬
날이 오게 되어
있지요. 이
사람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을 없애실 수 있었지만 인류
를 시험할 도구로 살도록 허락하셨습니
다. 인류는 하나님을 따를까요, 아니면
사탄을 따라 반역을 할까요?

하나님은 인류를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내가 이 땅을 저주하여 채소보다 가시와 엉겅퀴가 더 자라게 하겠고, 너는 애써 일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너는 평생토록 슬픔이 있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가 되었습
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는 대신 동물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
셨어!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구!

우리대신 동물을
죽이셨어요!

죄없는 동물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그 날 죽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형벌은 이미 내려졌고
그들은 결국 죽게 되어
있지요. 죽음은 죄에 대
한 형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어,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죄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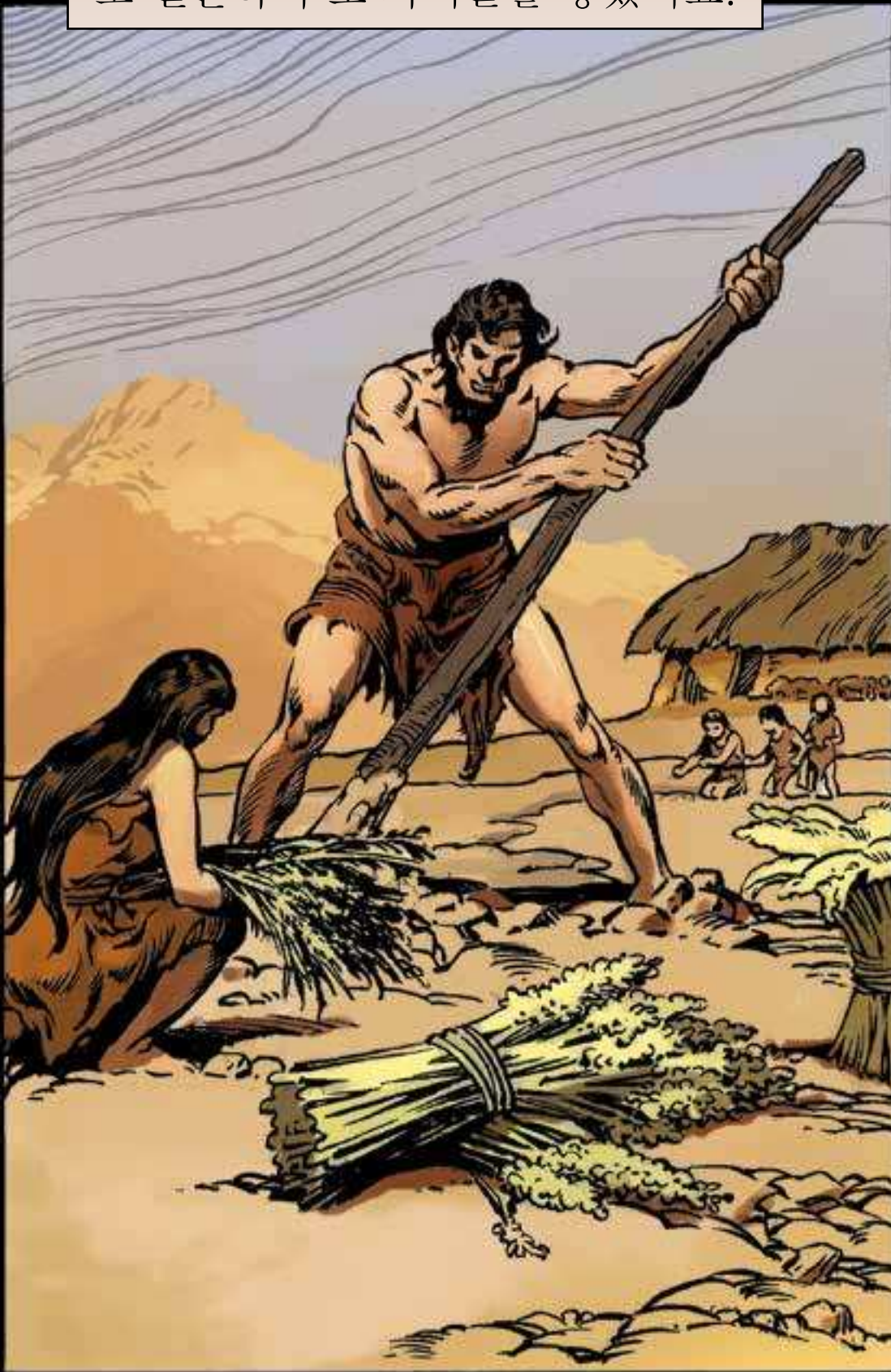


하나님은 동산 입구에 그룹이라 불리는 특별한 천사를 두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산은 결국 소멸되었고 생명나무는 땅에서부터 옮겨갔지요. 언젠가 생명나무가 이 땅에 돌아오겠지만, 이런, 내가 이 이야기를 너무 앞서가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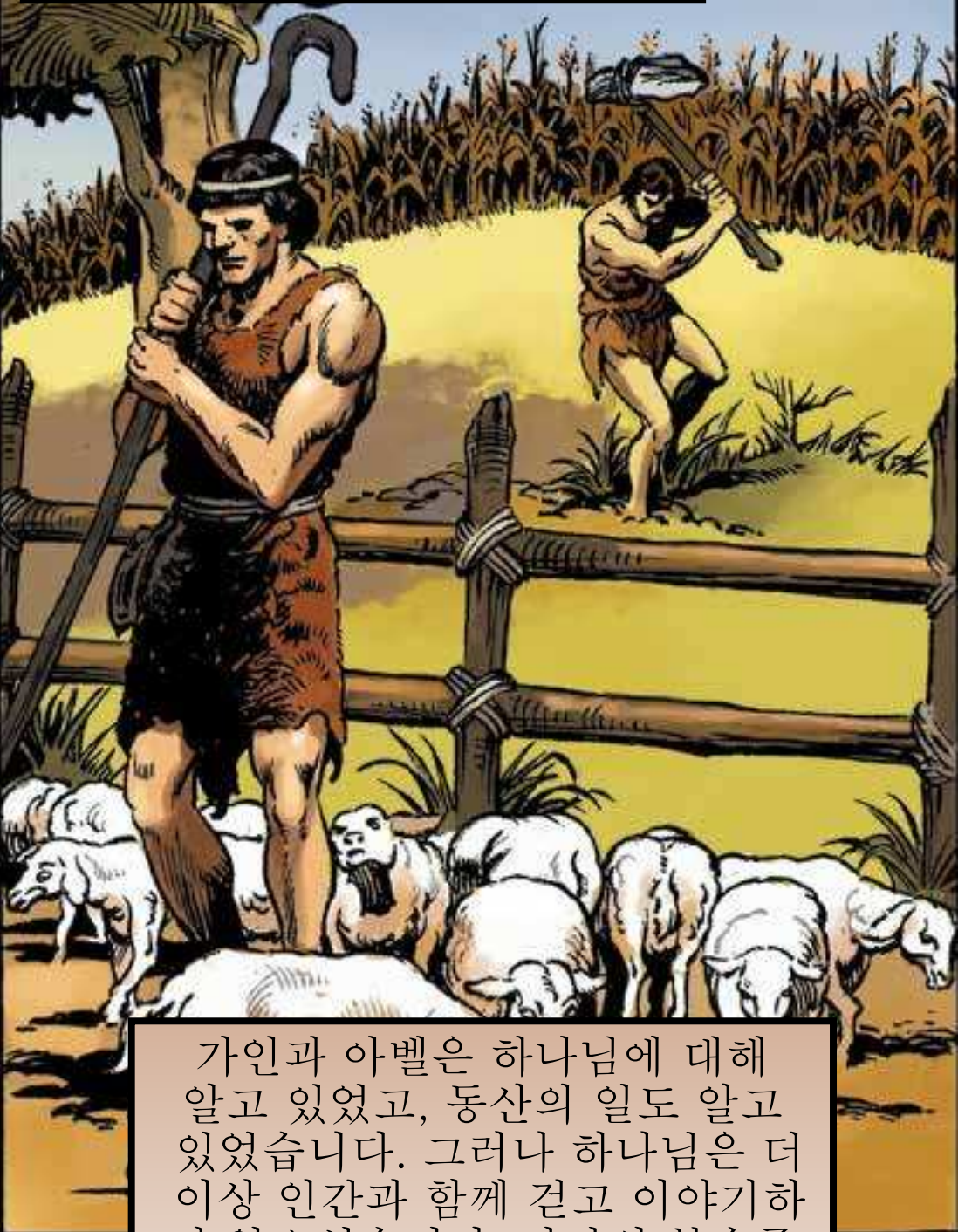


창세기 3:17~24; 에스겔 18:4

아담과 하와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
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과 딸들이 서
로 결혼하여 또 자녀들을 낳았지요.



큰아들 가인은 채소와 과일을 재배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동물을 길렀습니다. 과연 이들 중 하나가 사탄을 멸할 약속의 아들일까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동산의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과 그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지요. 하나님 없는 삶은 힘들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저를
대신해 이 어린양을
죽여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느 날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동산에서 하나님이 동물을 죽이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동물을 죽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가인도 그가 가진 중 최상의 것을 드렸지만, 그것은 피의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최상의 것으로
드리니 저의 제물을
받아주세요.

이들 중 하나가 약속
된 구속자일까요?

아니다, 가인아.



하나님은 피흘림 없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죄없는 어린양의 피흘림을 보시고서 아벨의 죄를 덮으셨지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땅히 할 바를 하면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다. 또 네가 동생 아벨을 다스리고 그는 너에게 복종하여 살 것이야.”

네가 뭐가 그리 대단
하지? 내 과일과 채
소가 그 피범벅이 어
린양보다 가치가 더
있는데. 뭣때문에 네
가 그리 특별하냐구?

형님, 아직
피의 제사를 드
릴 시간이 있습
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었는데,
내가 가지고야
말겠어!

썩!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자기가
살인한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창세기 4:5~8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기라도 해야 하나요?

네 동생의 피가 아직 땅에 있다. 그 핏소리가 너의 악한 행위를 내게 일러주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을 항상 보고 계시지요. 그에게서는 아무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가인이 아벨에게 한 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고 그는 아내를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약속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지요. 그 자신도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근친상간을 통해 신체적 결합을 가져오는 돌연변이 유전자는 아직 생기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자 하나님은 근친간의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구원자가 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또 낳고 이름을 셋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이 그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 하나님이 아들을 또 하나 주셨어요.

셋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 역시
아들을 낳았으며 많은 후손들이 태어
났지만, 죄의 저주를 없애고 사망을
멸망시킬 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
습니다. 곧 땅에는 많은 도시와 마을
과 농장이 생겨 번성하게 되었지요.



새 세대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죄역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성적인 죄를 범했고 란폭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죄의 생각이었지요. 어느 누구도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의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이 땅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멸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싫어하는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죽이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겠지요.

이제 아홉 세대(1400
년)가 지났고 세상은 죄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
의 길을 걸을 가족이 도대
체 하나님께 있을까요?

창세기 6:5~7; 로마서 5:12

B.C. 2500년경



그런데 공의를 행하고 언제나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일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그와 그의 가족은 죽이지 않으리라 마음먹으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온 땅
위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
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야. 너와 네 가
족과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
큰 배를 만들어라.

온 땅의 모든
동물들을 한 쌍씩 배에
태워라. 먹어도 되는 모든 동물
은 일곱 쌍씩 데리고 들어가라.
배를 어떻게 만들고, 홍수에 대
비해 무슨 준비를 해야할지
내가 알려주마.

노아가 바로 약속의 아들,
사탄의 일을 파괴할 그 아들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아니면
그 역시 거역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숨 쉬는 생
물 두 마리씩과 그들이 먹을 식량을
다 싣기 위해 배가 얼마나 커야 하
는지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 B.C. 2500년경 - 창세기 6:8~9,
17~22. 7:2

곧 닥칠 홍수에 모두가
멸망하리라는 생각에 노아는
슬퍼서 기회가 될 때마다 사
람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큰
홍수로 멸하실 겁니다. 저를 믿고
이 배에 함께 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들
을 죽이시겠
는가?

바보
늙은이 같으
니라구!

죄 때문이지요.
죄를 그만 짓고 사랑과
공의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120년 후 배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동물을 모아 노아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계속 오고 있어. 마치 누가 부르는 것처럼 스스로 오잖아.

어떤 놈들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 걸. 난 저런 동물이 있는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홍수를 보낸다는 노아의 말에 뭔가가 있을까?

말도 안 돼. 온 세상을 다 덮을 물이 도 대체 어디서 나오냐구?



자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이에요.

노아야, 이제
때가 되었다. 네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배에 오르
거라. 죄에서 떠나기를 거
부한 자들 모두가 곧 너무
늦었음을 알 것이야.


하나님은 배 문을 닫으셨고, 7일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하하, 저 바보들 좀 보게나. 물에서 멀리 떨어진 마른 땅 한 가운데 저 동물들을 다 데리고 큰 배에 갇혀 있구먼.

그러게, 아마 사자가 그들을 벌써 잡아 먹었을지도 모르지.

벌써 일주일이나 저 안에 있었다구!






그런데 일곱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땅 속 깊이 있던 물까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건 난생 처음 봐. 저 배에 탄 미치광이들이 하나님을 죄 때문에 모두를 죽이실 거라고 한 말이 사실일까?

웃기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야.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맞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다 틀릴 수가 있겠어?

이전엔, 비라는 것이 내린적이 없었습니다. 날씨는 항상 좋았고 아지랑이가 땅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아무도 비라는 것에 대해 보거나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미쳤다고 여겼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노아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구나!

오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B.C. 2348년경

사람들이 노아의 말이 사실이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온 땅의 산들은 다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와 함께 배에 들어간 이들을 제외하고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지요. 이제 일 년 이상이 지나야 그들이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약 B.C. 2348년경 - 창세기 7:12, 19~23, 8: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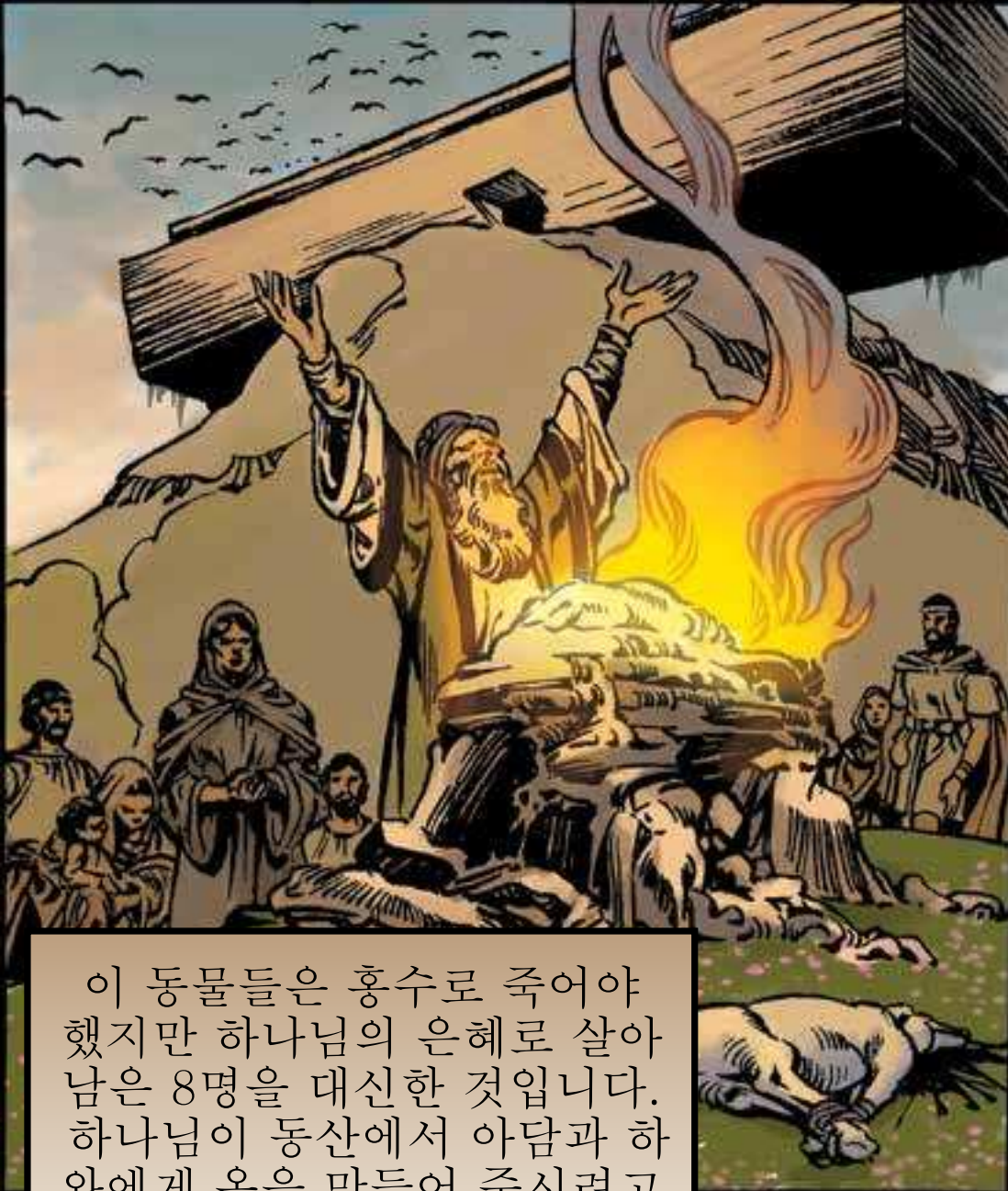
드디어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보냈고, 비둘기는 입에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어디선가 나무가 이미 자라고 있다는 말이었지요. 나중에 비둘기를 다시 날려 보내자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았다는 증거였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아라
랏 산에 걸려 머물렀고, 모두
가 새 세상, 곧 죄죄 없는 세
상으로 나왔습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고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마음속에 죄가 있었으니까요. 이 피의 제사는 노아와 그의 온 가족을 대신해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이 동물들은 홍수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8명을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주시려고 동물을 죽이셨던 것과 꼭 같은 것이지요.

내가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는 언약으로 삼겠다. 너희
는 자녀를 많이 낳아 온 땅에
흩어져 땅을 채워라.



내가 동물들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겠다. 너희는 채소와 풀을 먹는 것처럼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먹어도
좋다. 단지 그 피를 먹어서는 안된다.
아무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죄가
발견되면 다른 사람이 그를 죽여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죄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의 피를
흘려야 한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노아는 농부가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새 세상은 단지 네 가족뿐이어서 외로웠지만, 노아의 아들들은 자기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과일을 통에 넣고 몇 주 놔두면 정신을 흐릿하게 하는 술이라는 음료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아는 술을 너무 좋아하게 된 나머지, 어떤 때에는 일을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쓰러져 정신을 못 차리곤 했으니까요. 술은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술에 잔뜩 취하여
벌거벗은 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들 함
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재미있
어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가 본 것을 조롱하듯 말했지요.



노아가 깨어나자,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함이 한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살았고 결국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으니깐요.

너의 아들이 가나안과 그 후손들은 네 동생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창세기 9:21~27; 역대기상 4:40; 시편 78:51, 105:23, 27, 106:22

아담과 하와

셋



가인



아벨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덟 명을 제외한 모두를 죽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야벳은 북쪽과 서쪽으로 가서 정착하여 번성했습니다. 셈은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함은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와 남 아시아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 불리는 곳에 정착했지요. 이렇게 세상은 다시 사람들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B.C. 2247년경

노아의 아들 함은 구스라는 아들을 낳았고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니므롯은 성장하여 용맹스런 사냥꾼이 되어 온 세상에 이름을 떨쳤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바빌론이라는 곳에서 거짓 종교를 시작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땅에 흩어져 땅을 채우고 싶어하지 않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장소로 거대하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한
분은 그들의 창조자가 아
니었습니다. 사탄이 그들
을 조종하여 나무와 돌과
금속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게 했으니깐요.

하나님은 흠어지지 않으려
는 사람들의 모습에 화가 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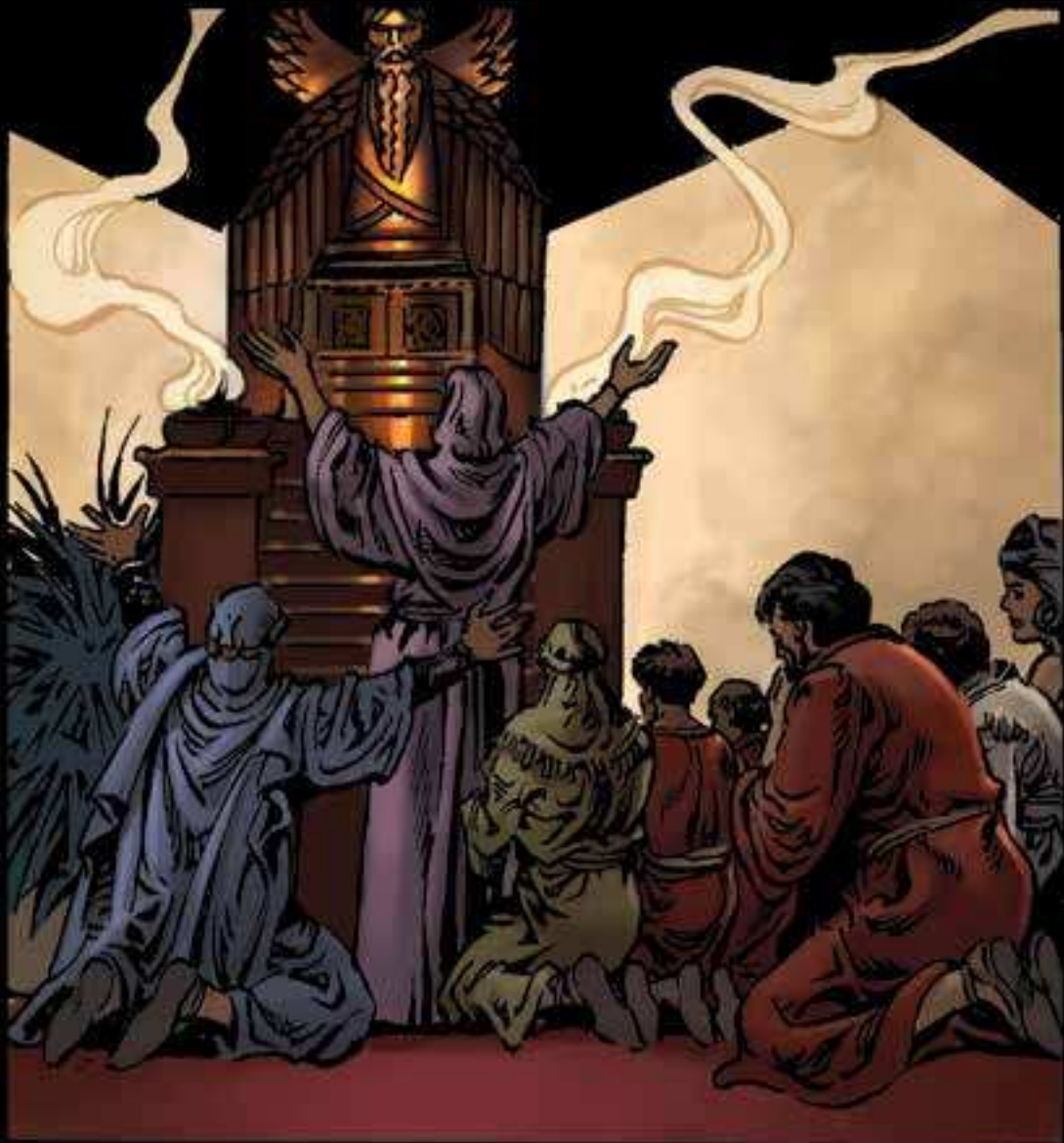
ᄃᄃᄃ ᄃᄃᄃ ᄃᄃᄃ
ᄃᄃᄃᄃᄃᄃᄃᄃ ᄃᄃᄃᄃ
ᄃᄃ ᄃᄃᄃᄃᄃᄃᄃ

ᄃᄃᄃ ᄃᄃ ᄃᄃᄃᄃ
ᄃ ᄃᄃᄃᄃᄃᄃ ᄃᄃᄃᄃᄃᄃᄃ
ᄃᄃᄃᄃᄃ

탑을 쌓던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말을 알아
듣지 못했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각 언어를 쓰는 무리들이 제각기 갈 길을 갔습니다. 어떤 무리는 땅의 먼 곳으로 갔고, 어떤 무리는 배를 타고 먼 섬으로 갔습니다. 어떤 무리는 추운 북쪽으로, 또 어떤 무리는 더운 사막 지방으로 흩어졌구요. 이렇게 해서 온 땅에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행되었습니다.



땅위에 사람들이 번성
하면서 죄는 다시 늘었
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에게 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약 B.C. 2247년경 - 창세기 10:6~10, 11:1~9



<https://goodandevilbook.com/>